

광양시의회, 코로나19 추경 예산 의결

예산 규모 1조 1456억 8천만 원에 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예산 신속 집행



광양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456억 8천만 원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 코로나19 예산은 ▲ 긴급 재난 생활비 263억 원 ▲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95억 원 ▲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26억 원 ▲ 아동양육 한시 지원 36억 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9억 원 등 23건 491억 원이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세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노후 포장도로 재포장 및 범정부도 초과보수 1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시각장애인이용 통합사무실 건물매입 4천9백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1억 원 등 10건 11억 원을

삭감했다.

서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관련 시민생활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도비 공모사업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조례안’ ‘광양시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일반안 4건을 심사 의결했다.

한편, 제287회 임시회는 당초 20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최근 앞당겨 개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나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시 최대 50% 감면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경영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해외 수출 중소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산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결정 또는 관련 약정을 임대인과 체결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단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

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2019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해외 수출중소기업 및 부품 생산업체가 전년 동기(1/4)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25~75%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신청인은 착한임대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 등록증, 임대 계약사본(임차인→임대인) 등을 구비, 제출하면 된다.

해외수출기업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전년 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 자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 착한 임대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군, ‘한솔 SRF 분쟁 간접강제 행정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 1일 500만원 지급의무 없어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주)가 전남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정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도 행정심위와 소송 참가인인 담양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담양군을 도 행정심의 참가인으로 한 재판에서 한솔페이퍼텍(주)가 신청한 고행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주)는 스팀을 생

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 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도 행정심위와 소송 참가인인 담양군을 도 행정심의 참가인으로 한 재판에서 한솔페이퍼텍(주)가 신청한 고행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군은 적법한 재처분을 위해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

했음에도 회사 측은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 시까지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회사 측이 재처분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행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도 행정심위에서도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과 같은 판단을 했으며, 이에 반발한 회사 측에서는 간접강제 기각결정 취소 청구와 불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군은 이번 간접강제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불수리 처분 무효화

인 소송도 군민의 행복 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면 주민 이 모씨는 “각종 환경오염 속에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에 살아오고 있었는데 주민 생명을 담보로 모로지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회사 편을 들지 않고 주민 편에서서 각각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다ioxin과 중금속 등의 독성이 강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세우는 것과 더불어 없는 SRF 소각을 막아내기 위해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 코로나19 위기 농산물 구매 참여



겪고 있는 학교급식 공급농가의 농산물 소비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세트 시주기’ 운동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가 100세트를 구입한데 이어, 법원, 검찰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 KT 순천지사에서 500세트를 주문해 농산물 소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순천로컬푸드(주)에서 기획 판매된 농산물 세트는 세계지종류로, 농산물구성 170세트, 돼지갈비 130세트, 한라봉 200상자를 마련해 모두 완판됐다.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참여한 공공서에서는 제품구성과 품질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여수시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다.

지원 금액은 설비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시설은 kW당 335천 원(3kW 최대 1,005천 원)을, 태양열 설비는 14㎡ 이하는 m당 73천 원/m²(최대 1,022천 원), 20㎡ 이하는 m당 65천 원/m²(최대 1,300천 원)을 지원한다.

340여 세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이 나면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14)로 지방비 보조금 참여 신청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COP28 유치 희망 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여수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범
상

한
속

남
다
른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